

광화문 집회 참석 차명진 확진...코로나 뚫린 정치권 초긴장

민주, 이낙연 음성 판정 안도...전대 선거운동 전면 중단 통합당, 의원 연찬회 잠정 연기하고 집회 참석자 검사

광복절 보수단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차명진 전 의원이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정치권에도 코로나 19 파장이 일고 있다. 차 전 의원은 국내 유명 정치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첫 사례로,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는 이번 사태의 여파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 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후보가 감염 여부 검사 결과 음성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이날 오전 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확진자와 간접 접촉했던 데 따른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곧이어 차 전 의원의 확진 소식이 알려졌다.

차 전 의원이 원내 인사이기 하지만 미래통합당 관계자들과 밀접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전날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했다는 소문도 돌며 의원과 보좌진들이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통합당은 김중민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날 광주 방문행사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오는 26~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서 예정했던 '정기국회 대비 의원 연찬회'도 잠정 연기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인사들도 속속 검사를 받고 있다.

앞서 민경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천 연수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문자메시지를 게시했다. 또 김진태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전 목사를 만나지도 않았지만, 주변에서 걱정하니 지금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제기하는 야당의 확산 책임론을 경계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통화에서 "차 전 의원은 당에서 이미 호적을 판 인사"라며 "전 목사나 광화문 집회를 우리 당과 계속 엮으려 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실제 차 전 의원은 총선 이틀날인 지난 4월 16일 자진 탈당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음성 판정에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오전만 해도 분위기는 긴박했다. 오전 예정된 최고위원회의가 오후로 연기됐고, 각종 의원 모임도 미뤄졌다.

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도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전대 당일 행사는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이 후보가 일단 음성으로 판정받기는 했으나,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아직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이날과 20일 계획된 TV 토론회 등 선거운동 일정도 '울스름'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도 이날부터 연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정보위원회 유관기관 업무보고를 24~25일로 미뤘다. 다만 기획재정부위원회는 김대지 국무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기하기가 여의치 않자 방역대책 속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문 대통령 "국민참여가 변화의 힘"

靑 국민청원 게시판 개설 3주년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개설 3주년인 19일 국민청원 게시판 통해 청원에 참여해 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에서 "책임 있는 답변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시작했지만 정부가 더 많은 것을 배웠다"며 "우리가 소홀히 해온 것들이 국민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약속대로 국민 목소리에 응답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때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답에 만족하

지 못한 국민도 계시겠지만 국민 참여 공간을 소중하게 키워간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힘이 될 것"이라며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끝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시작됐으며 그동안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한 인원은 3억3800만여명이고, 게시된 청원은 총 87만8690건이었다.

한 달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와대와 정부가 공식 답변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2017년 9월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답을 내놓은 후 지난달까지 총 178건의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김대지 부동산 의혹 '도마 위' 국제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대지 국제청장 후보자에 대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투자 및 자녀 교육 목적 위장전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미래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총 6번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하며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명백하게 고의로 전입 신고한 것이다. 국제청장 후보자가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의 어머니가 병원 치료를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하는데 치료와 주소 이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1년 2개월 동안 노모와 후보자, 배우자, 처제, 자녀까지 총 5명이 같이 살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윤희숙 의원은 "후보자는 송구스럽다고 대중 통치고 있는데 법에 대해서 가법계 여기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서일준 의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장관직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정렬성이 확인돼야 하는 자리"라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다르면 상세한 소명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의혹이 소명됐다며 방어막을 쳤다.

고용진 의원은 "의혹이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특수한 사정을 말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김 후보자는 딸의 학교 적응 문제로 1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10년 전 일인데 부끄럽게 생각한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김대지 국제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시당위원장 송갑석·도당 위원장 김승남 선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전남도당위원장에 송갑석(광주 서구갑),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19일 각각 선출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시당에서 상무위원회를 열어 송 의원을 위원장으로 뽑았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날 무안군 남악 복합주민센터에서 상무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의원 대회 대신에 상무위원회 형식으로 치러졌다.

연임인 송갑석 시당위원장은 "지난 2년에 이어 또다시 영광스럽고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됐다"며 "우리 앞에 코로나19 확산,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와 폭우 피해 등 위기가 산적해 있지만 시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AI와 광주형 일자리, 에너지 문제, 그린뉴딜 등을 선도하고, 새로운 미래를 가장 앞서 나가는 도시"라며 "광주 발전의 터전을 닦아 광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당당한 광주를 완성하며 정권 재창출과 차기 지방선거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승남 도당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재집권의 길로 가기 위해 50만 전남 당원들과 함께 선봉에 서겠다"며 "지역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

년·여성 당원 중 좋은 인재 발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전남도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방사광 가속기, 군공항 이전 등 광주·전남 현안 해결을 위해 광주시장·전남도지사와 시·도당위원장 간의 4차 협의체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공동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긴급지원과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전국 대의원대회 개최일까지이며, 2022년에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시당과 도당을 이끌게 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5·18 유공자 연금형태 보훈지원금 지급"

민주 이용빈 의원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9일 5·18 유공자에게 연금형태의 보훈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나 진상규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1990년 노태우 정권하에서 제정·시행되었다"며 "이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공헌에

따른 보상'이 아닌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5·18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민주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연금 형태의 보훈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8.29 전대, 결국 온라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를 올림픽 체조경기장이 아닌 여의도 당사에서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2차 대우형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맞춘 조치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9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철민 전준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8·29 전당대회는 당사에서 후보자와 전당대회 의장 등 극소수 당직자와 필수 수행요원 등 50명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상으로 진행된다. 전당대회 당일 행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하루 앞선

28일 온라인 중앙위원회를 열고 강령 개정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기존에 오프라인 행사로 열릴 예정이던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는 후보자와 당직자, 취재·중계진 등으로 참석자를 최소화해도 그 수가 100여명에 이르러 '실내 행사 참석자 50명으로 제한' 지침을 지키기 어려웠다고 전준위는 설명했다.

민주당은 1만5000석 규모인 잠실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중앙위원 600여명이 참석하는 일부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을 우선으로 방침을 바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